

# 2019년 톱 8 헬스케어 예측

가치 기반 케어의 해, AI·블록체인 등 최대 이슈  
아시아 등 신흥시장 양질 케어 선거 의제될 듯

2019년 헬스케어 산업은 많은 새로운 업체들이 진입하고 있어 인공지능(AI) 대 의사, 소비자 대 임상, 인간적 공감 대 기계 지능 사이에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컨설팅업체인 Frost & Sullivan은 2019년 헬스케어에 대한 8가지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19년은 결과 기반 케어에 초점을 예상한 만큼 가치 기반 케어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급자의 비즈니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급업체와 의약품/기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사이에 솔루션 계약에 위험 부담의 속성을 촉발할 것이다.

더욱이 적절하고 양질의 케어에 접근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부 유럽 국가들 등 신흥 시장에서 다가오는 2019년 선거를 위한 주요 정치적 의제가 될 것이다. 소매, IT와 헬스케어 산업 사이에 경계가 계속 모호해지면서, 2019년에는 서구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동양의 바이두, 알리 헬스, 텐센트 등이 개인 케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알리 헬스, 텐센트,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

로소프트, IBN 등 비전통적 디지털 시장 공급업체들이 접근이 쉽고 적절한 케어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보건 시스템에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함으로써 홈 헬스 분야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의 약품과 의료기기 R&D 투자는 아시아의 신흥 시장의 독특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더 많은 목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2019년은 AI(인공지능)와 블록체인 등 2개의 가장 흥미로운 기술에 대한 현실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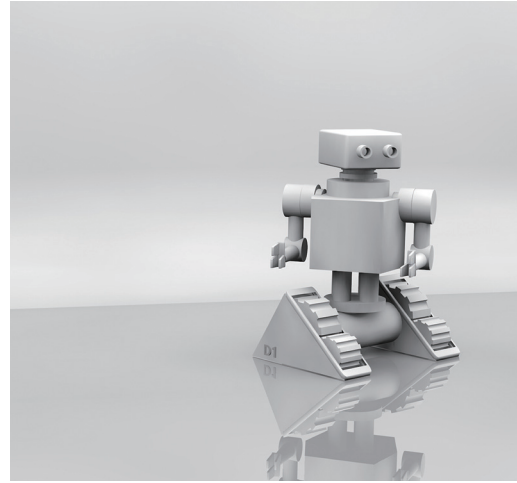
2019년 글로벌 헬스케어에서 톱 8대 예상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주-

## 1. 글로벌 헬스케어 지출의 15%는 가치 기반 모델들과 관련

2019년에 헬스케어 산업은 가치 기반 모델로 향해를 계속할 것이다.

보고서는 2019년 말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지출의 15% 이상이 가치/결과 기반 케어 개념과 어떤 형태로든 연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추진력은 현재 GDP의 거의



10% 이상을 의료 지출에 지출하고 있는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국가에서 더욱 시급할 것이다.

2019년 가치 기반 케어 정책은 제공자와 납부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데이터 주도형 위험 공유 프레임워크와 지속 가능한 보상 모델을 통해 경제 모델/비용 효과 측정에서 더 많은 건강 결과와 치료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환될 것이다.

## 2. 헬스케어 IT 응용을 위한 AI는 2019년 17억 달러 규모

2019년 임상과 비임상에 AI 사용 케이스는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더 뒷받침하는 강력한 결과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선택된 헬스케어 워크플로우에 걸쳐 AI 플랫폼을 운영하면 향후 2-3년간 생산성이 10-15%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종 사용자가 이런 IT 능력을 위해 추가 예산의 투입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AI

솔루션의 가격은 여전히 중요하다.

양 당사자의 잠재적 ROI(투자수익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포함된 비용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시장 성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9년 AI와 머신러닝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AI는 특히 영상 진단, 약물 발견, 위험 분석 애플리케이션에서 결실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 3. 병원 외에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 기술 캐터링(catering)은 250억 달러 규모로 30% 성장

2019년 디지털 헬스의 적용은 전통적인 시스템을 훨씬 뛰어넘고 개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전진할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세팅 외에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캐터링은 2019년 말까지 전 세계 250억 달러 시장을 넘어 30% 성장이 예상된다.



만성적인 건강 상태와 고령화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는 RPM 장치, 원격의료 플랫폼, PERS 및 mHealth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건강 솔루션의 주요 드라이버가 될 것이다.

또한 임상적으로 관련된 디지털 헬스 적용에 대한 호의적인 보상 정책은 행동 건강, 디지털 웰니스 요법, 치과, 영양 및 처방 관리를 포함하는 물리요법을 넘어 케어 전달 모델을 계속 확장할 것이다.

#### 4. 아시아 글로벌 약품과 기기 OEM의 새로운 지역 혁신 허브

역사적으로 의료 혁신 파이프라인의 대다수는 서에서 동으로 흘러왔다.

현재 두자릿수 성장(10~15%) 성장으로 제약산업의 20~30%를 기여하는 신흥시장에 일련의 글로벌 약품과 기기 OEM 업체들이 아시아 지역, 라이프스타일, 구매 적정성을 갖춘 신제품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년까지 헬스케어 R&D의 10% 이상이 아시아에서 신흥 시장의 혁신을 집중하기 위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아시아 태평양은 세포 치료제 단독에 만 글로벌 최종 단계 임상의 30% 이상으로 성장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이다.

또한 아태 시장은 향후 수년간 지노믹스(genomics) 혁신을 목격할 것이고 특히 중국은 아시아 지노믹스 분야에서 선두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품 개발과 지리적 롤아웃의 이런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감안할 때, 10억 달러 이상 가치의 유니콘 스타트업과 고령화와 소득 수준 증가로 헬

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편승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가 예상된다.

#### 5. 병원 특수성에 의한 빅 데이터에서 중요한 소 데이터로 분석 전환

헬스케어 산업이 데이터 관리 워크플로우에 익숙해지고 있어 많은 전문-특수 분석 솔루션은 약품 이용, 치료 가변성, 임상시험 적격성, 청구 불일치와 주요 만성 질환에 특수한 셀프케어 프로그램 속성을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공자 사이에 명성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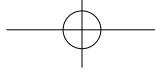
보고서는 2019년 말까지 모든 헬스케어 기업의 50%가 조직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근, 공유와 실제 증거를 분석하는 전용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분석 기능을 활용하는 헬스케어 납부자 및 제공자의 첫 번째 목표는 개인 위험을 확인하는 주민 건강관리, 최저 비용과 최상 결과 등 최상의 치료 경로의 확인과 강요와 환자, 보험사, 의사 및 절차에 의한 운영 자동화 등이다.

또한 AI와 분석 기능의 융합은 향후 2-3년 동안 주류로 확대된 분석 기능을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 6. 헬스케어는 음성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직적 지배

뉴안스(Nuance), 오비타(Orbita) 등 전문 업체와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선두 IT 업체들은 헬스케어 산업에서 사용이 적합한 표적화된 음성 기술이 인기를 얻고 있어 헬스케어는 음성의 정점에 있다.



보고서는 2019년에도 헬스케어에 HIPAA-인증 음성과 챗봇(chatbot)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빅 IT 기업들이 음성 솔루션에 대해 공격적으로 경쟁하고 있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음성 기술의 성숙은 빠른 의료 필기자와 음성 기반 유도 상호작용 녹취 등 제한된 음성 지원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하지만 정보의 긴 조각을 전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앞으로 노인요양, 만성질환 관리 등과 같은 임상적 사용 사례를 점검하는 음성 기술을 도입하면 의사 보조자는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 7. 블록체인(Blockchain)은 선전(Hype)에서 투자수익(ROI)을 가져오는 실제 초기 상용 구현으로 이동

2019년 블록체인은 기업 B2B 중심 계획 전반에서 인지된 광고에서 처음 투자수익(ROI)을 입증하는 초기 상업적 배치로 이동할 것이다.

보고서는 2019년 말까지 헬스케어 중심 기업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5~10%가 파일럿(pilot) 단계에서 부분/제한된 상업적 유효성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Change Healthcare, Hashed Health, Guardtime 등 기업들은 이미 상업적 이용 사례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헬스케어 ICO와 스타트업의 개념 입증의 선택적 이탈은 2019년 말까지 상용화되는 적은 유망한 사용 사례를 최종적으로 가져올 것이다. 이는 헬스케어 분야에 절실히 필요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승선을 기다린 초기 사용

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논란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과 분야를 탐색하는 채택의 주제로 현재 이동할 것이다.

## 8. 혁신적인 개인 보험 모델은 헬스케어 의료보험 산업을 개혁

오늘날 이용 가능한 의료 보험 정책은 노후됐고 종종 개인들의 맞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산업은 2018년 1.5% 미만의 성장이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보험 회사가 경험을 개인맞춤화하고 잠재적 보험금 청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미 보험 가입자에게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2019년 말까지 건강 보험 계획의 5-10%가 어떤 형태로든 생활양식과 의료 데이터 주도 양방향 정책과 연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보험 회사가 개별 데이터를 활용하고 할증과 할인/보상을 개인 맞춤화에 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향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인기를 끌 것이라고 주장했다.